

온 카와라(On Kawara) 작품에 나타난 개인의 일상기록 연구*

A Study on Personal Everyday Records in On Kawara's Works

이혜린(Lee, Hye Rin)** · 박주석(Park, Ju Seok)***

1. 서론
2. 온 카와라 작품의 미술사 및 기록학적 가치
 - 1) 온 카와라의 생애와 미술사적 위상
 - 2) 작품으로서의 기록
 - 3) 온 카와라의 일상기록이 지닌 기록학적 가치
3. 온 카와라의 일상기록 수집 및 생산 전략
 - 1) 일상의 기록적 구축
 - 2) 장기적·지속적 집적
 - 3) 사회적 매체의 활용
4. 결론

* 본 연구는 이혜린의 석사학위 논문(2016)인 「온 카와라(On Kawara)의 작품을 통해 본 개인 일상기록의 문화자원적 가치」를 요약·수정된 것임.

** 명지대학교 기록정보과학전문대학원 석사,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아키비스트 (sunday9919@naver.com) (제1저자).

*** 명지대학교 기록정보과학전문대학원 교수 (firstjason@mju.ac.kr) (교신저자)

■ 투고일 : 2016년 6월 29일 ■ 최초심사일 : 2016년 6월 29일 ■ 게재확정일 : 2016년 7월 22일

〈초록〉

본 논문은 개념미술가 온 카와라(On Kawara, 1932~2014)의 작품 분석을 통해 추론한 개인의 일상기록 방법에 관한 연구이다. 온 카와라의 작품은 예술작업의 결과인 동시에 개인의 일상기록으로 기록학적 가치가 아주 높다. 회화나 사진 또는 설치의 형태로 개인의 삶을 이야기한 많은 예술가들과는 달리 온 카와라는 일기 형식으로 자신의 삶을 작품으로 승화시켰다. 작가는 주도면밀한 기록 생산 전략을 갖고 수없이 반복되는 일상 중 자신이 언제 어디에서 일어나 누구를 만났고, 무엇을 읽었으며, 어디를 다녀왔는지 등 몇 가지 주제를 선택해 기록했다.

온 카와라는 기록의 생산자인 동시에 관리자로서 직접 기록물을 생산하고 수집했을 뿐만 아니라 신문과 지도, 엽서, 전보 등의 매체를 이용해 자신의 일상과 관련된 타인과 사회적 사건까지도 지속해서 기록했다. 작품에 담긴 내용은 작가 개인뿐 아니라 주변인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기에 기록의 핵심 가치인 정보적, 증거적 가치를 담보하고 있다. 자신이 살아가는 사회와 여러 사건들에 관심과 연민을 갖고 다양한 양상의 부조리 등을 함께 제시하는 방법으로 역사를 향한 세계관을 드러내기도 했다. 본 논문의 연구 대상인 온 카와라의 작품은 미술가가 자신의 일상을 작품으로 기록한 특수한 사례이지만, 개인의 일상기록이 역사적 기록물로 전환되면 시대상이 드러나게 되고 이를 통해 당대를 재구성하고 연구할 수 있는 사료가 된다는 사실을 보여준다. 나아가 사회가 발전하고 소통될 수 있는 역할을 수행하며 공론의 장을 마련할 수 있음도 알게 해준다.

주제어: 기록정보, 기록화, 문화자원, 온 카와라, 일상기록

〈Abstract〉

On Kawara's works are not only artworks but are also his personal daily records. He produced many artworks whose theme centered on his everyday life, a plan that he had precisely made. He selected

several specific themes from his daily life: when and where he met someone, what he read, and where he traveled. Kawara constantly recorded his daily life using various types of unconventional medium: maps, postcards, and telegrams. Although he was occupied with recording his everyday life, he was also active in forming public opinions on various issues through social media. Kawara's works, which exhibit a distinctive characteristic of himself, could be classified as individual records because it includes an individual's daily life and selected issues. His artworks express concern for or expose the irrationality of his society, which encourages ordinary people to let their voices be heard and take part in public affairs. Thus, his works function not just as art but also as precious historical records.

**Keywords : Archival Information, Documentation, Cultural Resources,
On Kawara, Personal Everyday Records**

1. 서론

개인이 사회를 구성하고 역사를 만들고, 역사를 기술하는 과정에서 개인의 삶을 이해하는 일은 필수적인 과정이다. 개인이 경험하는 일상¹⁾실존이며, 결코 이론적으로 기재되지 않은 적나라한 '삶'(박재환 1994, 25)이다. 개인의 일상은 역사의 한 부분을 이루고 표상하며, 일상의 기록은 당대의 현실과 시대상을 재구성하는 데 필요한 중요한 사료이기도 하다. 여기에서 일상이라 함은 개인이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는 방식'(마르틴 하이데거 2008, 474)을 의미하고, 일상기록은 '개인이 자신의 의지를 바탕으로 일상과 관련한 주제나 행위에 대한 기록'(한국기록학회 2008, 48)을 뜻한다.

1) 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

본 논문에서는 일본 출신으로 주로 뉴욕에서 활동한 개념미술가 온 카와라(On Kawara, 1932~2014)의 작품 분석을 통해 범용의 개인의 일상 기록 방법론을 연구하고자 한다. 온 카와라는 1966년부터 2013년까지 자신의 일상을 소재로 작품을 제작했다. 자신의 일상을 일기 형식으로 기록하는 과정을 통해 자신뿐 아니라 그가 살아온 사회상을 반영한 작품을 만들었다. 그동안 온 카와라의 작품은 자체의 독자적 미학(박주석 2014, 49)을 갖고 있으며 역사적으로 유례를 찾기 힘든 독특한 예술작품으로만 인식되고 연구되어 왔다. 하지만 그의 작품은 예술작품인 동시에 개인의 행적을 의식적으로 혹은 전략적으로 기록한 기록물로도 평가할 수 있는 측면이 강하다. 그에게 작품은 자신의 일상을 남긴 기록이고, 그의 일상은 작품으로 기록되어 있다는 점에서 기록학적 차원의 연구가 필요하다고 본다.

일상 아카이브를 연구한 기존 논문은 일상을 전략적으로 기록하는데 필요성을 절감하고 있지만 수집·생산 전략을 구체적으로 언급하지 않고 있다. 또한 온 카와라의 작품도 미술사나 미술비평의 차원에서는 많은 연구가 있었지만, 이를 생산, 수집, 기록화 등 기록학적 차원에서 연구는 거의 없었다. 따라서 기존의 연구로는 온 카와라의 작품이 지니는 기록학적 특성과 가치를 파악하기에 한계가 있었다. 그런 이유로 본 연구는 온 카와라가 전략을 수립하고 체계적인 과정을 통해 자신의 일상을 기록하였다는 점에 주목했다. 그의 작품이 개인의 일상기록물로서 갖는 특징과 전략을 분석해 개인의 일상을 기록하고 수집하고자 하는 기록학계의 수요에 부응하고자 한다.

온 카와라가 사망한 다음 해인 2015년 2월 6일부터 5월 3일까지 미국 뉴욕의 구겐하임(Guggenheim)미술관은 거의 전관을 할애해서 회고전 형식의 〈On Kawara-Silence〉란 제목의 전시를 개최했다. 이 전시의 도록은 온 카와라의 전 생애에 걸친 작업의 내용을 담고 있어 연구의 기초 자료로 삼았다. 또 관련 문헌과 논문, 신문 및 비평지 등의 기사를 살펴 온

카와라가 자신의 일상을 주제로 작업한 1966년부터 2013년까지의 작품을 연구하고자 한다. 이 시기에 제작된 작품 중 일상기록의 차원에서 만들어진 시리즈는 크게 <TODAY> (1966~2013)²⁾, <JOURNAL>(1966~2013), <I READ>(1966~1995), <I GOT UP>(1968~1979), <I MET>(1968~1979), <I WENT>(1968~1979), <I AM STILL ALIVE>(1970~2000) 등 7개가 있다. 이를 주제별로 세분화한 후 일상을 기록하는 방법 및 기록에 담긴 정보를 살펴보고, 기록의 특성과 전략을 분석하고 정리하고자 한다.

2. 온 카와라 작품의 미술사 및 기록학적 가치

1) 온 카와라의 생애와 미술사적 위상

온 카와라는 1932년 일본 아이치(愛知) 현 카리야시에서 태어났다. 고등학교를 졸업한 후 도쿄로 이사했고 독학으로 서양철학과 정치학, 정신분석 이론을 공부하였다. 온 카와라의 유년시절은 일본군의 아시아 침략과 원폭투하 등 일본 현대사에서 가장 혼란스러운 시기의 기억을 안고 있다. 온 카와라는 미·일안보조약을 둘러싼 대규모 시위가 벌어지는 혼란기에 미술가로 활동을 시작했다(우정아 2007, 53). 미술계 신예로 이름을 떨치며 주목을 받았지만 가족과 함께 멕시코시티로 이주해 3년간 미술학교에 다닌 뒤 1962년 미국으로 이주했다.

뉴욕에 정착한 후 온 카와라는 솔 르윗(Sol LeWitt), 조셉 코수스(Joseph Kosuth), 댄 그레이엄(Dan Graham), 구보타 시게코(Kubota Shigeko), 백남준(Nam June Paik), 야요이 쿠사마(Yayoi Kusama)를 비롯한 여러 유명

2) <TODAY> 시리즈는 <DATE PAINTING>으로 불리고 있는데 본 논문에서는 온 카와라의 작품을 '오늘' 하루의 일상기록이라는 측면에서 분석하므로 <TODAY> 시리즈로 통일하여 사용했다.

예술가들과 소통하며 개념미술가로 명성을 쌓아가기 시작했고, 그들과의 교류에서 많은 영향을 받으면서 그만의 독자적인 작품을 선보이기 시작하였다. 1976년 스페른 웨스트워드 피셔갤러리에서 처음으로 자신의 일상을 소재로 한 작품을 선보인 이후 구겐하임과 베니스비엔날레, 이스탄불비엔날레, 도쿄비엔날레, 카셀 도큐멘타 등 국제적인 미술전시에 참여하면서 일상기록의 예술이라는 영역을 구축해갔다. 그 후 풍피두센터를 비롯해 메트로폴리탄미술관, 테이트 갤러리 등 세계 곳곳의 현대미술관 등에서 그의 작품을 소장하기 시작하면서 아티스트로 전 세계적인 명성을 떨쳤다.

온 카와라의 작품은 미술사적으로 높은 평가를 받았을 뿐 아니라 미술 시장에서도 힘을 발휘하며 이슈의 중심으로 자리매김하였다. 1966년부터 자신의 하루와 일과를 작품의 소재로 삼은 온 카와라의 대표작 〈TODAY〉 시리즈는 2007년과 2014년 뉴욕 크리스티에서 각각 180만 달러와 420만 달러에 낙찰되었다. 미술 시장에서의 인기가 계속되자 캐나다 토론토 요크 대학의 석좌교수이자 현대미술 컬렉터로도 활동하고 있는 도널스 톰슨(Donald Thomson)은 자신의 책에서 온 카와라의 작품을 다음과 같이 평가하였다.

“1966년부터 그려온 카와라의 ‘오늘’ 시리즈는 결코 희귀한 작품이 아니다. 실제로 약 2,000점의 날짜 그림이 존재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러나 카와라는 현대미술 시장에서 확고하게 구축된 하나의 유명 브랜드다. 그 때문에 수많은 현대미술 딜러와 개념미술을 선호하는 컬렉터들이 날짜 그림을 구하지 못해 안달하는 것이다. 한 딜러는 컬렉터들이 비싼 돈을 주고라도 경매장에서 날짜 그림을 구입하겠다는 생각을 버리지 않는 한, 카와라는 계속 모든 사람이 원하는 작가로 남을 것이다.”(도널드 톰슨, 2010, 59)

온 카와라는 세계 유수의 미술관에서 열린 전시에 참여하였고 많은 사람에게 영감을 주고 영향을 끼치는 위대한 예술가로 평가받고 있다. 하지만 그의 명성에 비해 작가 자체에 대한 정보는 많이 남아 있지 않다. 심지어 작가의 사망 날짜도 불분명하다. 어떤 매체에서는 온 카와라가 2014년 6월 28일 죽었다고 보도하였고³⁾, 작품을 관리하는 이봉 랑베르 갤러리(Galerie Yvon Lambert)는 보도 자료를 통해 온 카와라가 7월 10일 사망하였다고 밝혔다⁴⁾. 작가의 작품을 관리하였던 또 다른 갤러리 데이비드 즈위너(The David Zwirner Gallery) 측은 인터넷 사이트에 그의 죽음을 알리며 온 카와라가 “29,771”일 살았다고 밝혔다. 이러한 표기는 온 카와라가 살아있는 동안 자신이 언제 태어났는지가 아닌 지금까지 며칠을 살아왔음을 알렸던 표기 방식을 존중한 것이다. 작가의 가족도 고인이 평생 지켜온 철학을 존중해 사망 날짜를 제공하지 않겠다고 전하였다.

온 카와라는 자신의 말보다 작품으로 메시지를 전달하기 위해 언론 매체와의 인터뷰도 좀처럼 하지 않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심지어 자신의 전시 오프닝에도 잘 나타나지 않았다. 그의 바람대로 온 카와라는 사망 후에도 작품만으로 존재감을 드러내며 2015년 현재 현대미술 작가 순위에서 511,240명 중 129위를 기록⁵⁾하며 여전히 영향력 있는 작가로 평가받고 있다.

2) 작품으로서의 기록

현대미술의 주요한 특징 중 하나는 예술과 삶의 경계를 허물기 시작

3) 2014년 7월 15일 『The New York Times』와 7월 24일 『The Guardian』에서는 온 카와라가 6월 말 사망하였다고 보도하였다.

4) 『The Art Newspaper』는 온 카와라가 2014년 7월 10일 사망하였다고 보도하였다.

5) 아트팩츠(artfacts)의 작가 순위를 참고하였다. 아트팩츠는 작가의 포괄적 가치를 수치화하고 있는 인터넷 사이트로 작가의 전시경력, 미술관 소장여부, 갤러리 소속 등 방대한 정보가 입력된 데이터베이스를 토대로 작가의 순위를 산출한다. 검색일자: 2016.6.15. <http://www.artfacts.net/en/artists/top100.html>

했다는 것이다. 대중문화와 관련한 일상 속 여러 이미지를 주제로 한 팝아트를 비롯해 예술의 개념을 오브제뿐만 아니라 비물질적인 것, 행위, 사회활동까지 포함하는 등 다양한 범위로 확장되어 왔다. 특히 독일 개념미술의 거장인 요셉 보이스(Joseph Beuys)는 “모든 사람은 예술가”라고 주장하며 사람들이 자신의 일상을 창의적으로 살아가는 행위가 예술이며, 이 사회를 좀 더 살기 좋은 곳으로 변화시키는 것 모두가 예술(손나운 2009, 24)이라고 보는 시각을 강조하였다. 온 카와라 역시 예술과 삶의 경계를 허물며 자신의 일상을 작품의 소재로 선택하였다. 특히 온 카와라의 작품은 작가 개인의 일상기록이고, 일상기록은 곧 자신의 작품으로 귀결된다는 점에서 작품과 개인기록의 한계를 넘나들며 새로운 영역을 구축했다고 볼 수 있다.

온 카와라는 언어와 숫자, 문장 등 다양한 요소를 이용한 개념적인 작업을 선보였고 점차 자서전적 체계로 발전시켰다. 변화의 결과는 자신의 일상을 소재로 한 <TODAY>, <JOURNAL>, <I READ>, <I MET>, <I WENT>, <I GOT UP>, <I AM STILL ALIVE>로 완성되었다. 7개 작품은 온 카와라의 일상을 주제로 하였다는 공통점이 있다. 온 카와라는 누군가에게 보여주기 위한 작품보다 자신의 행위 자체를 기록하는 데 초점을 두었다. 작품은 온 카와라 자신이 아닌 다른 사람에게는 거의 필요하지 않은 정보로 이루어져 있다. 하지만 이를 반대로 생각하면 온 카와라는 아무도 관심을 두지 않을 혹은 자신조차 무심히 흘려버릴 수 있는 행위를 기록했다는 것이고, 이러한 점에서 반복되는 일상에서 의의를 찾고 이를 꼼꼼하게 다루는 기록 생산자의 특성이 잘 나타나 있다.

온 카와라의 작품이 어떻게 자신의 일상을 담고 있으며 이것이 다시 어떻게 기록되는지를 작품의 내용을 이루는 작가의 하루를 기록한 것을 참고하고 생략되거나 제외되었던 요소들을 추가해 재구성해보겠다. “잠에서 깬 온 카와라는 자신이 침대에서 일어난 시간을 확

인한다. 작업실 책상에 앉아 고무 스탬프로 현재 머무르는 장소와 수신인의 이름과 주소, 자신이 몇 시에 일어났는지를 엽서에 표기한다. 작업이 끝나면 〈TODAY〉 시리즈를 그리기 시작한다. 틸티이 〈ONE MILLION YEARS-PAST〉에 들어갈 500년의 세월을 부지런히 타이핑한다. 정오가 되면 맨해튼 지도를 한 부 복사한 후 집을 나선다. 아파트에서 나와 자신의 행적을 표시한다. 길에서 만난 이웃들과 안부를 나누고 그들의 이름을 수첩에 적는다. 오늘의 목적지인 우체국에 도착하면 아침에 작성한 엽서 두 개를 큐레이터인 친구에게 보낸다. 그리고 'I AM STILL ALIVE'라는 메시지로 일본에 사는 예술가 친구에게 전보를 친다. 우체국을 나와 신문을 한 부 산다. 스튜디오로 돌아와 〈TODAY〉 시리즈를 다시 그리기 시작한다. 자정이 될 때까지 완성하지 못하면 파기해야 하므로 속도를 낸다. 신문 기사를 읽고 눈여겨보았던 기사 중 일부를 〈I READ〉와 〈TODAY〉를 위해 오려둔다. 〈TODAY〉 시리즈를 완성하였으므로 〈JOURNAL〉 시리즈의 달력에 도장을 찍고 배경색 샘플을 붙인다. 작업의 부제와 날짜, 캔버스 크기에 해당하는 알파벳도 기록한다. 수첩에 적어두었던 지인들의 이름을 오늘 날짜가 새겨진 종이에 타이핑하고 마지막으로 〈ONE HUNDRED YEARS CALENDARS〉를 꺼내 오늘 날짜에 빨간색을 칠한다.”(양은희 2004, 11-12) 온 카와라의 작업을 바탕으로 일과를 재구성하면 작가는 아침에 일어나서 잠이 들기 전까지 행위 대부분을 작품의 소재로 삼아 이를 기록하는 과정이었다.

온 카와라의 작품을 통해 알 수 있는 분명한 점은 그가 지루하고 무의미할 수 있는 자신의 일상을 강박적으로 기록하였다는 사실이다. 그의 작품은 시간성과 기록성을 결합한 일기 형식으로 매일 있었던 사건을 소재로 일상과 예술의 경계를 허물었다. 이런 작품에 대해 비평가들과 큐레이터들은 “기이한 방법으로 자신을 통제하고 관리한다”(Smith, Roberta 2015.2.6.), “시간과 장소, 지각(의식)을 기본적인 개

념으로 명상적으로 접근하는 특색⁶⁾” 등이라고 평가하고 있다. 온 카와라는 자신의 일상을 모두 기록한 것이 아닌 자신이 세운 계획과 의도에 따라 철저히 계산된 주제와 방법을 선택하였다. 이러한 모습은 온 카와라가 예술가뿐 아니라 주도면밀한 전략에 따라 치밀한 계획성을 바탕으로 한 기록 생산자다운 면모가 강했음을 보여준다. 또 이러한 특성의 작품은 여러 방법을 통해 구축된 일상기록물로도 평가할 수 있다.

3) 온 카와라의 일상기록이 지닌 기록학적 가치

온 카와라의 일상기록은 기본적으로 기록학에서 기록물의 평가 기준으로 삼는 정보 가치와 증거 가치를 충실하게 담보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기록의 정보 가치란 2차 가치에 포함되는 것으로 증거 가치나 현물 가치와 무관하게 인물, 사물, 사건 등을 기술한 기록의 내용에 기초한 자료의 유용함과 중요함(한국기록학회 2008, 210)을 갖는다. 또 기록의 증거 가치란 2차 가치에 속하는 것으로 기록 생산자의 기원·기능·활동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는 데 있어서 유용하고 중요하다(한국기록학회 2008, 235). 카와라의 일상기록에는 개인적인 고백이나 상황 설명, 예술가들의 흔적을 찾을 수 있다. 기록에 포함된 정보는 작가 자신에 대한 자료로 유용하고, 주변인과 사회 현상을 이해할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한다. 이런 기록 방식은 자신의 행위를 객관화시키는 증거뿐 아니라 다른 구성원과의 관계까지를 짐작할 수 있다.

6) 데이비드 즈워너는 2012년 열린 온 카와라의 전시 (Date Painting(s) in New York and 136 Other Cities)를 위해 발간된 자료에서 이와 같이 밝혔다.

〈그림 1〉 온 카와라 〈ONE HUNDRED YEARS CALENDARS〉



예를 들어 온 카와라는 그동안 자신이 언제 태어났다고 밝히기보다 특정 시점을 기준으로 살아온 생존 일자의 합을 언급해 자신의 존재를 드러내 왔다. 하지만 온 카와라는 〈그림 1〉의 작품 〈ONE HUNDRED YEARS CALENDARS〉에 자신이 태어난 1932년 12월 24일을 시작으로 자신의 작업 여부를 노란색과 초록색, 빨간색, 검은색 등의 색으로 분류해 표기하고 있어 그동안의 논란을 해소한다. 이처럼 온 카와라의 작품은 작가에 대해 서술한다. 같은 맥락으로 온 카와라의 작품은 생산된 시점과 장소, 기록된 내용, 작성목적과 기재 방법 등을 기록하며 당시의 정황을 드러내므로 개인의 행위에 대한 증거의 역할도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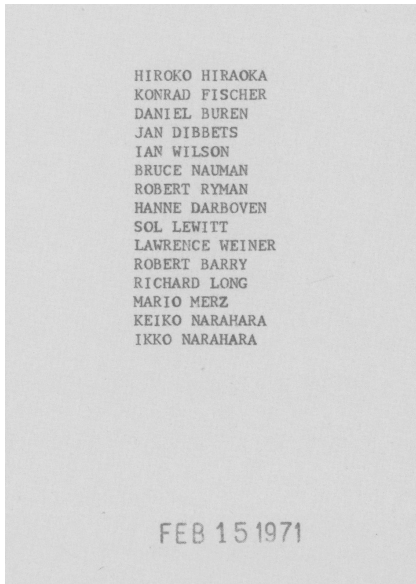
이러한 가치는 온 카와라의 작업 〈I GOT UP〉 시리즈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이 시리즈는 고무도장으로 그날의 날짜와 발신인, 수신인의 이름과 주소가 쓰이고, 기록이 생산된 날짜와 장소, 기록 내용, 작성 방법 등의 정보를 제공한다. 기록 매체인 엽서는 멕시코의 투우 장면이나 뮌헨의 알테 피나코테크, 뉴욕의 엠파이어스테이트 빌딩이나 자유의 여신상 혹은 구겐하임 미술관 등 도시의 대표적인 관광지 사진을 담고

있어 당시에 일반적으로 구매할 수 있었던 각 지역의 관광 엽서의 종류와 우표 등을 확인할 수 있다.

온 카와라의 기록은 자신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뿐 아니라 동시대 예술가에 대해서도 묘사한다. 뉴욕은 1960년대부터 현대미술의 메카로 부상하며 세계 미술계에 막대한 영향력을 끼치기 시작하였다. 예술가들은 그들만의 커뮤니티를 형성해 활동하며 영역을 넓혀갔고, 온 카와라도 당대 최고의 예술가들과 소통하며 관계를 맺었다. <MET> 시리즈는 온 카와라가 가깝게 지낸 예술가들의 리스트를 제공하고, 그들이 서로 어떤 관계를 유지해 영향을 받았는지를 유추하는

자료로 가치를 인정할 수 있다.

<그림 2> 온 카와라 <I MET> 1971년



<그림 2>는 1971년 2월 15일 온 카와라가 만난 사람들의 리스트이다. 리스트에 이름이 적힌 작가들은 당대에 두드러진 활약을 한 젊은 작가들로 평가받았다 (Schwabsky Barry 2015.3.20).

리스트에는 온 카와라의 아내이자 예술가였던 히로코 히라오카를 비롯해 콘라드 피셔(Konrad Fischer)⁷⁾, 다니엘 뷔랑(Daniel Buren), 얀 디베츠(Jan Dibbets)⁸⁾, 이안 윌슨(Ian Wilson)⁹⁾, 브루스 나우먼(Bruce Nauman), 로버트 라이먼(Robert Ryman)¹⁰⁾, 한네

7) 현대 미술 작가들을 소개하는 갤러리리스트다.

8) 네덜란드 작가로 대지(大地)를 이용한 랜드 아트를 선보인다.

9) 아프리카 출신 작가로 도큐멘타 7과 퐁피두센터 등에서 작품을 선보였다.

다보벤(Hanne Darboven)¹¹⁾, 솔 르윗, 로렌스 와이너(Lawrence Weiner)¹²⁾, 로버트 배리(Robert Barry)¹³⁾, 리차드 롱(Richard Long)¹⁴⁾, 마리오 메르츠(Mario Merz)¹⁵⁾, 잇코 나라하라(Ikko Narahara)¹⁶⁾의 이름을 확인할 수 있다. 그들 중 다니엘 뷔랑, 한네 다보벤, 리차드 롱, 마리오 메르츠, 솔 르윗, 로버트 라이먼, 로렌스 위너는 구겐하임에서 열렸던 전시 <Guggenheim International Exhibition>¹⁷⁾에 온 카와라와 함께 참여하기도 하다. 온 카와라의 다른 작품에서도 동시대에 함께 뉴욕을 배경으로 활동했던 작가들에 대한 기록들을 찾아볼 수 있다.

- ㉓ MAR 13, 1966 “AY-O가 아파트에 고양이를 데려왔다.”
- ㉔ FEB 4, 1967 “올덴버그와 클레인이 오늘 오후에 내 스튜디오에 왔다. 저녁에 내가 이 작품의 제목으로 올덴버그의 이름을 사용해도 되는지 묻기 위해 그의 스튜디오로 갔다.”
- ㉕ APR 21, 1967 “커널 가 지하철역에서 백남준을 만났다. 저녁 7시 40분이었다.”
- ㉖ MAY 22, 1967 “솔 르윗과 폴몰 한 갑.”
- ㉗ MAY 23, 1967 “오늘 오후에 댄 그레이엄이 뉴욕 엘드리지와 그랜드 가 모퉁이에 있는 우체통에 편지를 넣었다.”
- ㉘ NOV 28, 1967 “레이 존슨에게서 온 편지는 뉴욕 어딘가에서 오늘자 소인이 찍혔다.”
- ㉙ MAR 29, 1968 “로이 리히텐슈타인이 오늘 저녁에 빨간 스웨터를 입고 있었다.”

앞의 인용문을 보면 온 카와라와 예술가들과의 교류에 대해서도 알 수 있다. ㉓에서 보이는 AY-O는 1931년에 일본에서 태어난 일본 예술

-
- 10) 미국 출신의 추상화가로 추상표현주의와 미니멀리즘을 연결하는 데 공헌한 것으로 평가받는다.
 - 11) 독일 작가로 숫자를 이용한 작품을 선보였다.
 - 12) 미국 출신의 작가로 타이포그래피와 관련된 작업을 선보였다.
 - 13)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하는 작가로 베니스비엔날레와 파리비엔날레 등에 참여하였다.
 - 14) 영국 출신의 대지미술 작가다.
 - 15) 아르테 포베라 운동을 전개한 이탈리아의 설치 미술가다.
 - 16) 일본 출신의 사진작가다.
 - 17) <Guggenheim International Exhibition>은 1971년 2월 12일부터 4월 11일까지 구겐하임미술관에서 개최되었다.

가로 뉴욕에서 활동하며 플렉서스 일원으로 활동했다. 온 카와라와 비슷한 시기에 출생해 뉴욕에서 활동했다는 공통점으로 가깝게 지냈다고 알려져 있다. ㉔에 보이는 백남준과의 만남 기록은 뉴욕에 거주하는 같은 동양인 예술가로서 두 사람 사이에 관계가 있었음을 증명한다. ㉕에 기록된 솔 르윗과 관련한 내용은 〈JOURNAL〉 시리즈에도 기록되어있고, 그에게 보낸 엽서 〈I GOT UP〉 시리즈와 전보 〈I AM STILL ALIVE〉 시리즈의 기록에도 남아있다.

본래 예술작품으로 평가받았던 온 카와라의 작품은 예술적 가치 이외에 기록물로서 전략적 정보 구축을 통해 장기적으로 기록되고, 사회적 담론에 참여하였다는 특성이 있다. 이러한 특성을 갖춘 온 카와라의 일상기록은 자신을 둘러싼 타인과의 관계도 비중 있게 다루는 동시에 개인과 사회를 서술한 역사기록물로 정보적·증거적·사회적·역사적·예술적 가치를 갖는다. 또 온 카와라의 기록은 시간과 공간, 당대 사회적 흐름을 갖추었기 때문에 오늘날 연구되고 활용되어 기록물로서의 가치를 충분히 지녔다고 할 수 있다.

3. 온 카와라의 일상기록 수집 및 생산 전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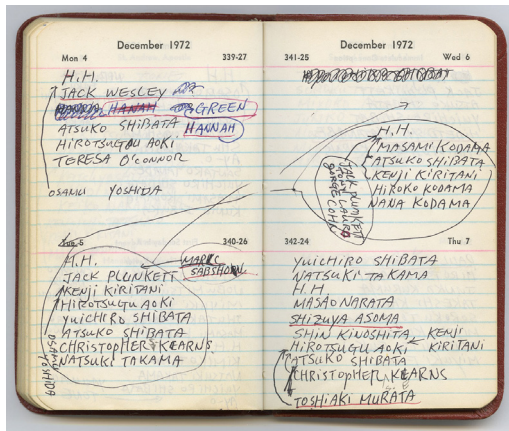
1) 일상의 기록적 구축

온 카와라는 수많은 행위로 이루어지는 일상 가운데 자신이 흥미를 느끼는 몇몇 주제를 선별해 기록하였다. 특히 개인·시간·공간·소통·사회 등은 그의 주요 관심사였다. 온 카와라는 자신의 일상을 기록하기 위해 ‘생산’과 ‘수집’의 방법을 사용하였다. 생산과 수집을 통해 완성된 온 카와라의 일상기록은 다른 예술가들의 작품처럼 즉흥적이거나 추상화된 개념보다는 치밀하고 계획적인 기록 전략을 강조한 것이 특

징이다. 예를 들어 갑작스럽게 떠난 여행에서 지도를 구하지 못했을 경우에는 임시방편으로 자신의 하루 루트를 메모한 후 추후에 작품으로 완성하였다. 또 가급적이면 계획에 없는 외출을 자제하였다. 가령 친구의 여행 제안에 컨디션이 좋지 않다는 이유로 거절하였지만 실제로 이미 그날의 지도를 완성한 상태였고 초행길을 기억해내지 못하리라 느꼈기 때문이라는 기록도 있다(Jeffrey Weiss, Anne Wheeler 2015, 139).

자신이 만난 사람들의 이름을 타이핑한 〈I MET〉 시리즈에도 이러한 특징이 나타난다. 온 카와라는 가족과 주변인뿐 아니라 자신과 이야기를 나누었던 가게 점원이나 호텔 종업원, 바텐더의 이름도 함께 기록하였다. 세계 곳곳을 여행하며 새로운 사람과 인사를 나누는 기회가 많아지면서 그들의 이름도 함께 적었다. 익숙하지 않은 서양 사람들의 이름을 기억하는 데 어려움을 겪으면서 자연스럽게 명함을 요구하거나, 상황이 여의치 못할 경우엔 직접 이름을 써달라고 하는 방법을 택하였다. 그리고 〈그림 3〉에서처럼 자신이 만난 사람의 이름을 수첩에 적어두었다가 집으로 돌아온 후 리스트를 완성하기도 하였다.

〈그림 3〉 온 카와라의 노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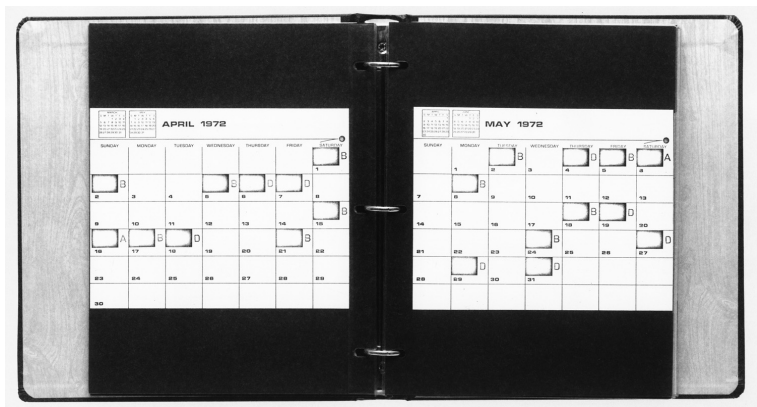
계획적인 기록의 특징은 <TODAY> 시리즈의 정보를 여러 방법으로 구축한 <JOURNAL>, <I READ>, <ONE HUNDRED YEARS CALENDARS>에서 잘 드러난다. <그림 4>는 온 카와라가 1972년 4월 18일에 제작한 <TODAY> 시리즈로 제목은 <APR.18,1972>이다.

<그림 4> 온 카와라 <TODAY> 1972년



표면적으로 이 작품을 통해 알 수 있는 정보는 많지 않다. 온 카와라는 해당 작품을 1972년 4월 18일 자정이 되기 전에 완성하였고, 영어권 국가에 체류하였으며 캔버스의 배경색은 검은색 혹은 검은색에 가깝고 날짜를 흰색으로 칠했다는 단편적인 정보뿐이다. 하지만 작가는 해당 날짜에 대한 정보를 여러 작품에서 반복적으로 드러내며 캔버스를 통해서 알 수 없는 여러 정보를 다발적으로 드러냈다.

〈그림 5〉 온 카와라 〈JOURNAL〉 1972년



〈그림 5〉는 〈JOURNAL〉 시리즈 중 1972년 4월과 5월에 해당하는 내용으로, 〈TODAY〉 시리즈의 완성 여부와 작품 크기를 간략하게 표기하고 있다. 온 카와라는 1972년 4월에 총 10점의 〈TODAY〉 시리즈를 완성하였다. 각각의 캔버스는 A(8×10인치)와 B(10×13인치), D(18×24용인치) 크기이다.¹⁸⁾ 앞에서 언급한 〈그림 4〉에 해당하는 날짜 4월 18일에 찍힌 스탬프는 〈TODAY〉의 완성 여부이고, 알파벳 “D”는 캔버스 크기를 뜻한다. 온 카와라는 각각의 캔버스 크기를 그대로 적지 않고 알파벳으로 치환해 기록하였는데 1972년에 해당하는 내용은 다음과 같다.

63

A...16....8 " × 10 "

B...27....10 " × 13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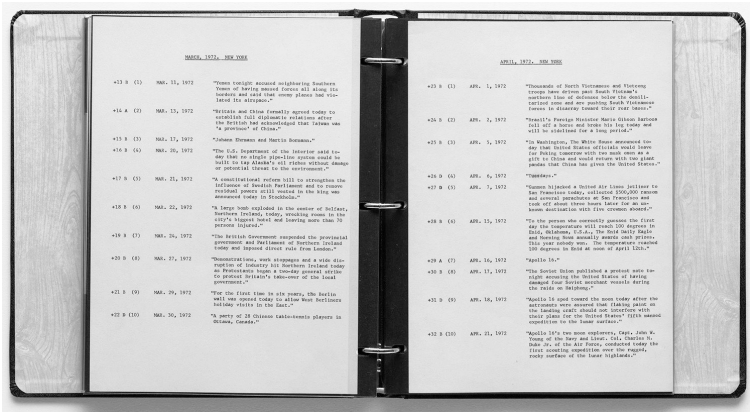
D...20....18 " × 24 "

(Jeffrey Weiss, Anne Wheeler, 2015, p.100)

18) 〈TODAY〉 시리즈의 캔버스 크기는 8×10인치(20.3×25.4cm)부터 61×89인치(155.8×227.3cm)이다. “D” 포맷이라고 표기된 〈APR.18,1972〉의 크기는 18×24인치(45.7×61cm)이다.

이와 같은 기록을 통해 온 카와라는 1972년에 총 63개의 <TODAY> 시리즈를 완성하였다. 그해에 남긴 캔버스 크기는 A와 B, D 총 3가지로, 8×10인치 크기의 작품 16점, 10×13인치 크기의 작품 27점, 18×24인치 크기의 작품 20점을 제작하였다.

〈그림 6〉 온 카와라 <JOURNAL〉 1972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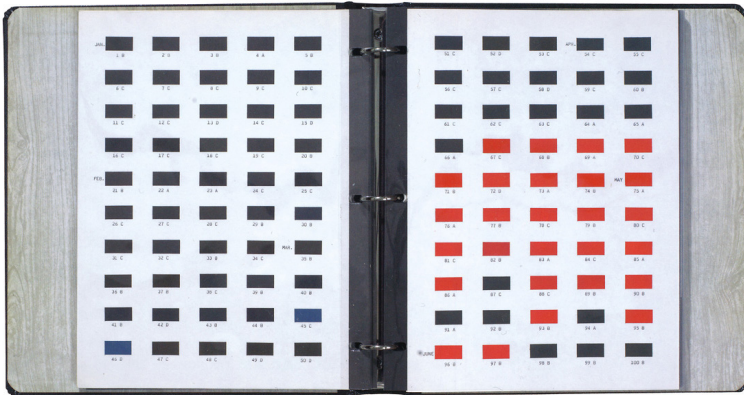


1972년 4월 18일에 대한 다른 정보는 자신의 개인적인 심정이나 작업에 대한 단상을 적거나 그날의 신문 기사 중 인상 깊었던 뉴스를 기록한 “Subtitles”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그림 6〉은 1972년 3월과 4월과 관련한 부분으로 해당 기간에 완성한 <TODAY> 시리즈는 모두 뉴욕에서 완성되었고 각각의 작품 크기와 순서, 작가의 개인적 기준으로 선택한 심경 혹은 신문 기사의 부제가 적혀있음을 알 수 있다. 다음은 <APR.18,1972>에 대한 기록이다.

+ 31 D (9) APR.18,1972 “아폴로 16호의 우주 비행사들은 착륙선의 페인트가 떨어진 고장이 미국 역사상 5번째로 달 표면에 착륙할 임무에는 아무런 지장을 미치지 못한다고 밝히며 향진을 계속하였다.”

가장 앞의 “+”는 <TODAY>의 보관 상자에 신문 기사가 포함되어 있음을 의미한다. 숫자 “31”은 그 작품이 1972년에 그린 31번째라는 것을 나타내고, 알파벳 “D”는 앞에서 언급하였듯 캔버스 크기이다. 괄호 안에 쓰인 숫자 “(9)”는 해당 그림이 4월에 그린 9번째 그림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가장 오른쪽에 있는 문장은 4월 18일에 있었던 다양한 사건 중 온 카와라가 아폴로 16호¹⁹⁾와 관련한 사건을 관심 있게 보아 이에 대한 신문 기사의 제목을 기록한 것이다.

〈그림 7〉 온 카와라 〈JOURNAL〉



온 카와라는 <TODAY> 시리즈와 연결된 정보를 자신만의 체계를 세워 기록하였다. 정보를 체계적으로 자료화한 점은 다음의 사례에서도 나타난다. 〈그림 7〉은 〈JOURNAL〉의 “Colors” 부분으로 <TODAY> 시리즈에서 사용한 캔버스 배경색과 크기, 완성 순서 등을 1월부터 12월까지로 재분류해 기록하고 있다.

19) *The New York Times* 1972년 4월 18일 발행된 신문에서 해당 기사를 확인할 수 있다. 검색일자: 2016, 6, 15. <http://query.nytimes.com/gst/abstract.html?res=9907EFD9103DEF34BC4052DFB2668389669EDE>

라는 시간에 걸쳐 지속하였고, 같은 방법론과 주제를 유지하며 기록의 논리적 질서를 부여하였다. 본 논문에서 언급하는 시리즈 중 가장 오랜 시간 지속한 것은 단연 온 카와라의 대표작인 <TODAY>와 이에 대한 일지인 <JOURNAL>로, 1966년부터 2013년까지의 기록이 남아 있다. 다음 <표 1>은 온 카와라의 시리즈별 작업 기간을 정리한 것이다.

<표 1> 온 카와라의 작품 시리즈별 작업 기간

	1966	1968	1970	1975	1979	1985	1990	1995	2000	2005	2012	2013
TODAY	///	///	///	///	///	///	///	///	///	///	///	///
JOURNAL	///	///	///	///	///	///	///	///	///	///	///	///
I READ	///	///	///	///	///	///	///	///				
I MET		///	///	///	///							
I WENT		///	///	///	///							
I GOT UP		///	///	///	///							
I AM STILL ALIVE			///	///	///	///	///	///	///			

<TODAY>와 <JOURNAL> 다음으로 오래 지속한 <I READ> 시리즈는 <JOURNAL>에서 신문 기사를 부제로 기록하는 형식에서부터 발단된 것으로 1966년부터 1995년까지 이어졌다. 자신이 만난 사람들의 이름을 리스트로 만든 <I MET>와 지도에 자신의 하루 동안의 움직임을 표기한 <I WENT>, 일어난 시간을 표시해 주변인에게 엽서로 보낸 <I GOT UP> 시리즈는 모두 1968년에 시작하였고, 세 시리즈의 작업 도구인 고무 도장을 분실하면서 동일하게 1979년 9월 17일을 기점으로 그만두었다 (Jeffrey Weiss, Anne Wheeler 2015, 129). 또 전시 큐레이터에게 전보를 보내면서 <I AM STILL ALIVE> 시리즈를 시작해 2000년까지 유지하였다. 온 카와라는 1970년부터 1979년까지 7개의 시리즈를 모두 제작하였고 시리즈별로 길게는 약 50여 년, 짧게는 약 10여 년을 같은 주제와 방법으로 자신의 일상을 기록하였다. 지속적으로 작성된 기록은 시간의 흐름에 따라 개인의 인식과 시선을 보여준다는 특징을 보인다. 온 카

와라의 기록 의지와 특성은 특정 기간 공간과 시간, 수신자의 변화에서 파생되는 정보를 보여준다. 여기에서 발생한 결과물은 작가가 집착한 이슈와 활동 반경, 개인적 심경 등을 드러내는 중요한 자료이다.

〈그림 9〉과 〈그림 10〉, 〈그림 11〉은 온 카와라의 〈TODAY〉 시리즈 중의 작품이다. 온 카와라는 1970년 1월 1일 가능한 매일 작품을 남겨야겠다고 결심한 후(Jeffrey Weiss, Anne Wheeler 2015, 220) 하루에 최소한 하나의 작품을 남겼다. 해당 시기 동안 작가는 10×13인치 크기의 캔버스에 〈TODAY〉 시리즈를 97점 완성하였다. 매일 두 개씩 180개의엽서에 자신이 일어난 시간을 적었고(〈I GOT UP〉), 90개의 지도에 자신의 움직임을 기록하고(〈I WENT〉), 대화를 나눈 사람들의 리스트 90개를 만들었다(〈I MET〉). 수백 개의 신문 기사를 오려 〈I READ〉와 〈TODAY〉 시리즈에 사용하였다. 1월 20일에는 처음으로 “I AM STILL ALIVE”라는 메시지를 적어 전보를 보냈으며 해당 기간에 18개를 더 발송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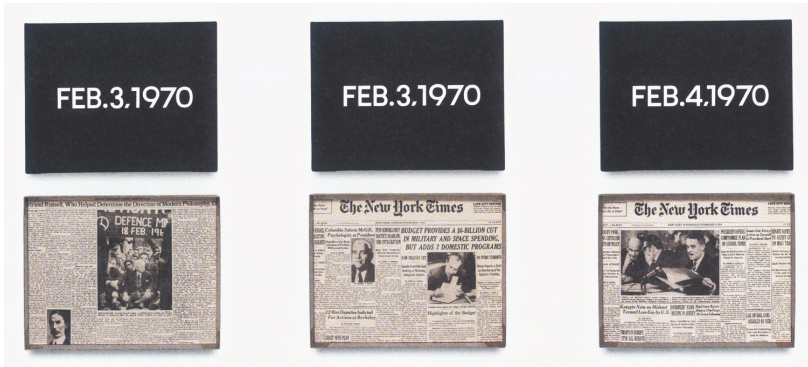
〈그림 9〉 온 카와라 〈TODAY〉 1970년



〈그림 10〉 온 카와라 〈TODAY〉 1970년



〈그림 11〉 온 카와라 〈TODAY〉 1970년



이 기간에 온 카와라는 특정 주제에 대한 기사를 반복적으로 기록하였다. 관련 내용을 보면 어떤 사건들이 1970년대 초반에 사회적으로 논란이 되었고, 온 카와라가 관심 있게 살핀 사회적 이슈가 무엇이었는지를 보여준다. 다음은 온 카와라의 작품에 기록된 뉴스들이다.

- ㉠ JAN 2, 1970 “의학 역사상 심장과 두 개의 폐를 이식받은 두 번째 환자 에드워드 포크가 수술을 받은 지 8일이 지난 오늘 뉴욕 병원에서 사망하였다.”
- ㉡ JAN 15, 1970 “이스라엘의 고고학자인 나훔 아비가드 히브리대학 교수는 구 예루살렘의 유대인 지역에서 서기 70년에 도시와 함께 파괴된 건물 유적을 발견했다고 밝혔다.”
- ㉢ JAN 22, 1970 “이스라엘 공수부대가 헬리콥터로 수에즈만의 입구에 있는 샤드완 섬에 침투해 이집트인들을 포로로 잡고 레이더 기지를 운반하기 위해 준비하였다.”
- ㉣ FEB 1, 1970 “오늘 이스라엘과 시리아군이 골란고원에서 1967년 6일 전쟁 이후 가장 치열한 전투를 벌였다.”
- ㉤ FEB 2, 1970 “철학자이자 수학자인 버트런드 러셀이 오늘 밤 자택에서 97세의 나이로 사망하였다.”
- ㉥ FEB 9, 1970 “미주리 주의 세인트루이스에서 18개월 된 아이 안토니 클리프가 독일 셰퍼드에 물려 사망하였다. 이번 사고는 브렌트우드 교외에 있는 집에서 벌어졌으며 아이는 세인트 루이즈 병원에 도착하자마자 사망하였다.”
- ㉦ FEB 10, 1970 “프랑스에 있는 알파인 리조트 발 디세르를 덮친 눈사태로 최소 39명이 사망하였다.”
- ㉧ MAR 11, 1970 “추리물과 미스터리 소설가인 얼 스탠리 가드너가 오늘 80세 나이로 사망하였다. 정확한 사인은 밝혀지지 않았지만 암 투병 중이라는 보도가 있었다.”

온 카와라는 3달 동안 5건의 사망 사건을 기록하였다. ㉠와 ㉡~㉣의 경우 철학자이자 수학자 버트런드 러셀(Bertrand Russell)의 타계 소식과 변호사로 활동한 경험을 살려 소설을 쓴 얼 스탠리 가드너(Erle Stanley Gardner)의 사망을 비롯해 의학적으로 논의되던 인물과 안타까운 사고로 죽음에 이른 이들의 소식을 전하고 있다. 또 다른 관심사는 ㉡~㉣에서 볼 수 있듯 이스라엘과 아랍 국가들과의 분쟁에 관한 내용이다. 과거부터 이어온 이스라엘과 아랍국가의 갈등은 1970년대 초에도 지속되었다. 이스라엘 전폭기가 수에즈 운하 근처의 이집트와 레바논 지역에 위치한 군 기지를 강타하였고, 이에 맞선 아랍 국가들도 가세하며 세계적으로도 관심이 집중되었던 사안이었다.

온 카와라의 작품에는 당시 세계인의 관심이 집중된 또 다른 사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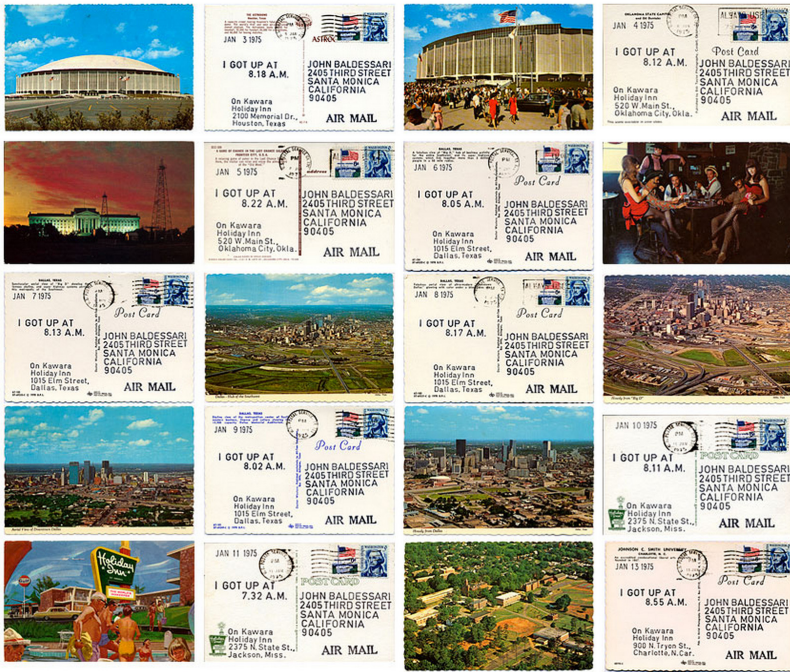
달 착륙과 비행기 납치와 관련한 기록도 찾을 수 있다.

- ㉓ JAN 5, 1970 “지구로 가져온 달 표면 표본을 정밀히 조사한 결과, 만약 달이 지구에서 떨어졌다면 그 시기는 지구가 형성될 때이거나 바로 직후임이 밝혀졌다.”
- ㉔ JAN 7, 1970 “달 암석을 현미경으로 관찰한 결과 줄무늬 패턴을 발견하였다.”
- ㉕ FEB 14, 1970 “두 달 전 납북되었던 KAL기의 승객 39명이 귀환하였지만 여전히 승객 8명과 승무원 4명, 여객기가 억류되어 있다.”
- ㉖ MAR 31, 1970 “도쿄 공항은 15명의 일본 극좌파 학생 조직이 136명의 승객을 태운 탄 JAL 기를 북한으로 납치하려고 시도했다고 밝혔다.”

㉓와 ㉔에서 보듯 1970년 1월 초에는 1969년 아폴로 11호가 달 착륙 성공 후 우주비행사들이 달에서 가져온 암석에 대한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었다. ㉕와 ㉖의 경우는 강릉발 서울행 여객기 납북 사건과 약 한 달 후에 벌어진 JAL기 납북 시도 등 연관성 있는 사건들에 대한 기록이다. 앞에서 언급한 사건들은 당시 사회적으로 화제가 되어 많은 사람에게 영향을 끼쳤던 사건이었다. 작가는 여러 사회적 사건을 전하는 신문 기사를 지속해서 주시하며 이를 발췌하였다. 이러한 특성은 온 카와라가 본인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사건이라도 사회적 상황과 변화에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었음을 말해준다.

지속적인 작업은 여행 중에도 계속되었다. 특히 그가 뉴욕을 떠나 여행 중일 때 완성한 작업에는 공간과 시간에 따른 개인의 활동 범위와 변화가 두드러지게 나타난다. 〈그림 12〉는 1975년 1월 3일부터 1월 13일까지 생산한 〈I GOT UP〉 시리즈이다. 기록을 살펴보면 온 카와라는 1월 3일부터 13일까지 자신의 거주지인 뉴욕을 떠나 여행 중이었다. 1월 3일에는 텍사스 주의 휴스턴, 4일과 5일은 오클라호마주의 오클라호마시티, 6일부터 9일까지는 다시 텍사스 주로 돌아와 댈러스, 10일과 11일에는 뉴올리언스 주의 잭슨 시에 체류하였고, 마지막 날은 노스캐롤라이나주의 샬럿에 머물렀다. 이 기간에 온 카와라는 미국 전역을 여행

〈그림 12〉 온 카와라 〈I GOT UP〉 1975년



하며 동일한 숙박 업체인 홀리데이인(Holiday Inn)에서 묵었다.

엽서 앞면을 통해 각 도시의 특징이 드러나는 이미지를 알 수 있는데 휴스턴의 세계 최초의 돔 경기장인 해리스 카운트 돔 스타디움을 비롯해 오클라호마 의사당, 댈러스는 항공부류 포착한 도시 전경과 카우보이를 연상시키는 술집 풍경 등이다. 총 10개의 엽서는 모두 한 사람에게 보내졌는데, 수신인은 미국의 대표적인 개념미술가 발데사리(John Baldessari)이다. 엽서 앞면에는 각 도시의 대표적인 관광지나 랜드마크 사진이 자리하고, 뒷면에는 크게 발신인과 수신인의 이름과 주소, 메시지를 적는 공간, 우표를 붙이는 칸으로 구성된다. 이 중에서도 앞면 사진과 뒷면에 적힌 발신인의 주소는 온 카와라가 엽서를 쓸 당시의 장소를 알려주고,

우표에 찍힌 직인은 그가 실제로 그 지역에 있었음을 사실로 증명한다.

지속적인 기록을 통해 온 카와라의 행적을 유추할 수 있는 작품 중 하나는 〈I WENT〉 시리즈다. 〈그림 13〉은 온 카와라가 1969년 3월 31일부터 4월 2일까지 자신의 발자취를 남긴 작품이다. 이 지도들은 모두 맨해튼 지역²⁰⁾의 것이었다.

〈그림 13〉 온 카와라 〈I WENT〉 1969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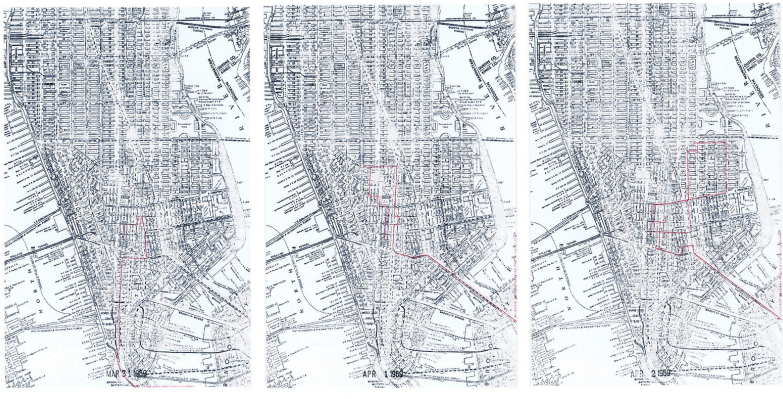


그림 중 왼쪽에 있는 지도를 살펴보면 아랫부분에는 “↑ JF KENNEDY INTERNATIONAL AIRPORT”라고 쓰여 있다. 이러한 기록 중 화살표는 맨해튼을 향하므로 온 카와라가 1969년 3월 31일 다른 지역에서 뉴욕으로 돌아왔거나 누군가를 공항에 배웅한 후 돌아왔음을 알 수 있다. 가운데 지도를 살펴보면 오른쪽 끝 부분에 “WASHINGTON AV. AND EASTERN PARKWAY BROOKLYN →”이라는 메모가 쓰여 있다. 작품에 기록된 바에 의하면 온 카와라는 1969년 4월 1일 뉴욕 맨해튼을 곳곳을 다녔고, 최종 목적지는 브루클린 지역의 워싱턴 애비뉴와 이스턴 파크웨이였다. 지도에 표시된 주

20) 온 카와라의 스튜디오는 지도에 표시된 지역인 맨해튼 동쪽에 위치하였다.

소에는 브루클린 미술관이 있는데 온 카와라가 비자 문제로 미술관 내 미술학교에 다녔으므로²¹⁾ 학교에 가는 길의 행적을 기록하였음을 추측할 수 있다. 가장 오른쪽 지도에는 중간 지도와 같은 문구 “WASHINGTON AV. AND EASTERN PARKWAY BROOKLYN”이 쓰여 있다. 단, 가운데 지도의 화살표는 방향이 브루클린으로 향하는데 마지막 지도는 맨해튼 쪽을 향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4월 1일 학교로 가 밤을 새워 작업한 뒤 다음 날 맨해튼으로 돌아온 것을 짐작하게 한다. 세 번째 지도의 목적지(다른 지도에서는 출발지)는 뉴욕의 소호 지역 중 한 곳이다. 이와 동일한 지점은 3월 31일과 4월 1일, 그리고 이후에 제작된 〈APR 3 1969〉, 〈APR 4 1969〉, 〈APR 5 1969〉에서도 출발지 혹은 목적지로 표시되는데, 이러한 정보를 통해 온 카와라의 집 혹은 작업실이 뉴욕 소호 지역에 위치함을 알 수 있다.²²⁾

이처럼 온 카와라는 다른 사람에게는 큰 의미를 지니지 않은 행위를 지속적으로 기록하였다. 이러한 기록들은 시간과 공간의 요소와 결합해 온 카와라의 개인적인 관심 대상을 추측할 수 있고, 한 사람의 흔적을 되짚어 시선과 의식을 발견할 수 있는 특징을 보여준다.

3) 사회적 매체의 활용

온 카와라는 일반적으로 화가들이 사용하는 소재가 아닌 엽서와 전보, 지도 등 일반인들도 쉽게 접할 수 있는 공적 매체를 활용하였다. 특히 작가는 작품의 소재인 동시에 세계와의 소통 창구로 신문을 이용한 다양한 작품을 선보였다. 온 카와라가 주로 기사를 발췌한 매체는 『The New York Times』였고, 『New York Post』, 『The Chronicle

21) 해당 내용을 1967년 3월 17일 〈JOURNAL〉 시리즈의 부제로 남겼다.

22) 독립 큐레이터인 칼린 더 용(Karlyn de Jongh)은 「On Kawara Unanswered Questions」이라는 글에서 자신이 소호에 있는 온 카와라의 아파트에 몇 차례 간 적이 있다고 밝혔다. 이 글에서 온 카와라의 집에 가기 위해 “Greene Street”을 건넜다고 썼는데 〈그림 13〉에서 출발지 혹은 목적지로 표시된 지역은 이곳과 매우 근접하다.

Herald』, 『Aftonbladet』, 『Liberation』, 『Kölner Stadt』 등 자신이 머무르고 있는 지역의 신문을 선택하기도 하였다. 온 카와라는 신문의 내용을 발췌해 기록할 때 자신이 의견을 덧붙이지는 않았다. 그는 어떤 사건에 대한 자신의 의견을 피력하기보다는 개인적 기준과 사회적 중요도에 따라 다양한 분야의 이슈를 전달해 당대 상황을 객관적으로 보여주는 데 목적을 두었다. 또 온 카와라가 발췌한 신문 기사의 대부분은 자신과 직접적으로는 관련이 없는 주제들이다. 하지만 작가는 세계 곳곳에서 일어나는 사건·사고 등의 혼란스러운 사회 상황을 끊임없이 기록하며 이에 대한 관심을 지속하고 있다. 해당 기록은 다음과 같다.

- ㉠ JAN 31, 1966 “미국이 북베트남을 다시 폭격하기 시작했다.”
- ㉡ MAY 15, 1966 “약 200명의 승객을 태운 배가 태풍 어마의 영향으로 세부에서 좌초되었다.”
- ㉢ JULY 7, 1966 “러시아와 바르샤바 협정을 체결한 6개 국가(불가리아, 루마니아, 헝가리, 폴란드, 체코슬로바키아, 동독)는 북베트남이 요청할 경우 미국에 맞서기 위해 베트남에 의용군을 보낼 계획이라고 밝혔다.”
- ㉣ JULY 8, 1966 “I.A.M. 회원 35,400명이 오늘 오전 6시를 기점으로 231개 도시에서 자신들이 근무하는 이스턴 항공사와 내셔널 항공사, 트랜스월드 항공사, 유니티드 항공사를 상대로 미국 항공사 역사상 가장 큰 파업에 돌입하였다.”
- ㉤ JULY 25, 1966 “남베트남의 대통령 응웬까오끼가 오늘 ‘중화 인민공화국은 동아시아 지역의 자유를 억압하는 진정한 적이고, 중국 공산주의자들과 5년 혹은 10년 후가 아닌 바로 지금 대면하는 것이 낫다’라고 말했다.”
- ㉥ MAR 22, 1972 “오늘 북아일랜드 벨파스트에서 폭발 사건이 일어나 도시에서 가장 큰 호텔이 파괴되었고 70명 이상이 다쳤다.”
- ㉦ MAR 29, 1972 “부활절을 맞아 베를린 장벽이 6년 만에 오늘 처음으로 개방되어 서독 시민들이 동독을 방문할 수 있게 되었다.”

앞의 인용문은 자신의 사건을 덧붙이지는 않았음에도 작가의 눈길을 사로잡았던 사건들을 짐작할 수 있게 한다. 특히 기록된 내용 중에는 신문 기사를 보면 온 카와라가 일본에서 겪은 불우했던 어린 시절의 영향으로 전쟁과 폭력 등의 주제에 관심을 보였다는 점을 파악할 수 있다.

온 카와라의 작품이 사회적 매체를 활용해 공적 담론에 대해 발언하는 것 이외의 중요한 특징은 정확한 출처를 밝혔다는 점이다. 아래의 〈그림 14〉는 1970년 3월 7일에 완성한 〈TODAY〉 시리즈이다. 작품에서 알 수 있듯 1970년 3월 7일에 완성된 것이고, 종이상자 속 신문은 같은 날 발행된 『The New York Times』 중 일부다. 작품의 오른쪽은 1970년 3월 7일에 기록된 〈JOURNAL〉 시리즈의 부제이다. 실제로 1970년 3월 7일에는 과학자들이 세기의 일식이라 불렀던 개기일식이 멕시코와 미국 동부를 거쳐 북대서양에서 관측되었고, 닉슨은 우주탐색을 목표로 한 특별성명서를 발표하였다.²³⁾

〈그림 14〉 온 카와라 〈TODAY〉 1970년



“태양과 달, 지구가 일직선에 놓이는 개기 일식이 북미 대륙을 가로지르며 일어나, 대낮이 암흑으로 변하는 현상이 관측되었다.”

닉슨 미 대통령은 우주여행과 핵추진로켓 등 다방면에 걸친 우주 개발 계획을 발표하였다.”

23) 해당 작업의 부제는 『The New York Times』 1970년 3월 8일 기사에서 확인할 수 있다. 검색일자: 2016. 7.15. <http://query.nytimes.com/gst/abstract.html?res=9E00EFD8153AEF31A2575BC0A9659C946190D6CF>

소재나 방법이 아닌 일상에서 발생한 정보로 구성되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온 카와라의 작품은 유례를 찾기 힘든 독창성을 바탕으로 예술적으로 높은 가치를 인정받아왔다. 하지만 앞의 사례에서 볼 수 있듯 온 카와라의 작품은 계획적이고 전략적인 계획을 바탕으로 장기적으로 작성된 개인의 일상기록으로도 평가할 수 있다.

4. 결론

1966년부터 자신의 일상을 기록한 온 카와라는 아침에 일어나면서부터 다시 잠들 때까지 수많은 일상 중 몇 가지 주제를 선별해 작품으로 잠겼다. 먼저 날짜를 표기해 오늘 하루 자체를 기록하고(⟨TODAY⟩), 그 날에 대한 여러 정보를 일지 형식으로 작성한다(⟨JOURNAL⟩). 만난 사람들의 이름을 정리하고(⟨I MET⟩), 자신의 행적을 표기한다(⟨I WENT⟩). 흥미롭게 읽거나 주요한 사건 기사를 스크랩하고(⟨I READ⟩), 일어난 시간을 타인과 공유하며(⟨I GOT UP⟩), 자신이 여전히 일상을 살아감을 알린다(⟨I AM STILL ALIVE⟩). 작가는 모든 사람에게 주어진 하루를 보내며 많은 사람이 무심코 흘려버릴 수 있는 행위를 선택해 기록하였다.

온 카와라는 생산과 수집을 통해 개인의 일상기록을 전략적으로 구축하였다. 자신의 일상을 무작위하게 전부 기록한 것이 아닌 자신이 세운 계획에 따라 철저히 계산된 주제와 방법을 사용하였다. 일상의 수많은 행위 중 자신이 흥미를 느낀 주제는 크게 개인과 시간, 공간, 소통, 사회였다. 온 카와라는 앞에서 언급한 키워드의 주제를 50년이라는 오랜 시간에 걸쳐 축적하였고, 동일한 방법론과 주제를 유지하며 기록에 논리적 질서를 부여하였다. 그러한 이유로 개인의 일상을 지속적으로 기술한 온 카와라의 작품은 작가에 대한 자료를 넘어 주변인과 당대의 예술가들, 사회 현상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기에 정보와 증거의 가치를

갖는다. 또 자신의 현재 상황과는 직접적으로 관련이 없을 수 있는 사건들을 편집해 객관적으로 보여주기에 사회적 가치를 담고 있다. 이와 같은 특성과 가치를 갖춘 온 카와라의 작품은 개인의 일상과 관심 그리고 주변 관계를 담고 있는 기록물이다.

온 카와라의 사례를 살펴보았듯 개인이 남긴 일상기록은 삶의 모든 영역에 걸쳐 생산될 수 있다. 일반적으로 개인이 자신의 일상을 남긴 것이 기록으로서의 가치를 가지려면 체계적인 방법을 통해 단발성 행위가 아닌 지속성이라는 핵심 요소를 지니고 지속하여야 한다. 또 같은 방법론을 유지해 한 명의 주체가 특정 주제에 대해 기록해야 한다. 개인이 자신의 일상을 기록하는데 매일 다른 방법과 주제를 선택하면 기록 간의 논리성을 담보할 수 없다. 더불어 개인의 일상기록은 주체뿐 아니라 사회적 상황과 맥락을 담아야 한다. 개인이 기록하는 일상은 자신의 개인사를 넘어 사회와의 관계 안에서 제시해야 하며 이를 통해 그 시대의 사회적 상황과 흐름에 대한 정보를 담아야 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특성을 갖춘 개인기록이 문화자원으로 되기 위해서는 사회적 공감대를 얻어 역사적 기록물로 인정받고, 다른 기록에서는 볼 수 없는 유일성을 지녀야 한다. 이러한 조건을 충족해 보존될 가치를 갖게 되면 기록물뿐 아니라 작품으로서도 인정될 수 있다.

본 논문의 연구 대상인 온 카와라의 작품은 미술가가 자신의 일상을 작품으로 기록한 특수한 사례이다. 하지만 사회 구성원으로 개인이 남긴 일상기록이 보존할 가치가 생겨 문화자원으로 평가받으면 자신의 역사와 당시의 시대적 상황을 이해하는 좋은 자료가 될 것이다. 본 연구를 통해 개인이 기록자로서 자신의 일상을 기록하는 범위가 확대되고, 개인의 일상기록이 문화자원으로 인정받아 다양하게 연구되고 활용되기를 기대해 본다.

〈참고문헌〉

- 도널드 톰슨. 2010. 『은밀한 갤러리』. 천안: 리더스북.
- 마르틴 하이데거. 2008. 『존재와 시간』. 서울: 동서문화사.
- 박재환. 1994. 『일상생활의 사회학』. 서울: 한울.
- 박주석. 2014. 예술기록 관련기관과 제도의 이해. 예술기록관리의 이론과 실제. 서울: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예술자료원.
- 손나운. 2009. 일상의 미학적 탐구 : 예술적 치유의 몸짓들. 석사학위논문.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미술학부 회화·판화전공.
- 우정아. 2007. 마치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 온 카와라의 〈일일회화 Date Paintings〉와 전쟁의 기억. 『서양미술사학회논문집』, 27호, 53.
- 한국기록학회. 2008. 『기록학 용어 사전』. 고양: 역사비평사.
- Jongh, Karlyn. 2011. 『On kawara Unanswered Questions』. Leiden: Global Art Affairs Foundation.
- Schwabsky, Barry. 2015. March 20, Silence and Slow Time. The Nation, <https://www.thenation.com/article/silence-and-slow-time/>
- Smith, Roberta. 2015. February 6, A Life Captivated by the Wonder of Time. The New York Times, http://www.nytimes.com/2015/02/06/arts/design/the-guggenheim-shows-first-on-kawara-retrospective.html?_r=0http://www.nytimes.com/2015/02/06/arts/design/the-guggenheim-shows-first-on-kawara-retrospective.html?_r=0
- Weiss, Jeffrey & Wheeler, Anne. 2015. 『On Kawara-Silence』. New York: The Solomon R. Guggenheim Foundation.
- Yang, EunHee. 2004. On Kawara's nomadic mind : Autobiography of "a citizen of the world", Doctoral dissertation, The City University of New York, New York, USA.
- Zwirmer, Lucas. 2012. 『Date Painting(s) in New York and 136 Other Cities』. Antwerpen: Ludion.